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n Integrative Approach

김명숙*, 고종욱**

마이비즈컨설팅*,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Myeong-Suk Kim(jarakim65@naver.com)*, Jong-Wook Ko(jwko@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차별적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 요인 관련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10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3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인 주관적 경제수준, 여가활동요인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사회적지지 요인인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 그리고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외향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생활만족도 |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경제수준 | 여가활동 |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 외향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nd a variety of health, economic,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comprehensively examined as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347 old people participating in the leisure activity programs operated by 10 facilities for the aged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 as a main data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ubjective economic level, productive and consumptive leisure activities, spouse and children support, self-esteem and extraversion had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 keyword : | Life Satisfaction | Subjective Health Condition | Subjective Economic Level | Leisure Activities | Social Support | Self Esteem | Extraversion |

I.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80.8세를 기록했다. 1970년 62세에서 약 40년 동안 18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노년기는 개인의 문제 및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1]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 비율이 50.1%이고, 경제적 형편이 만족스럽다는 비율은 26.1%에 불과하며, 배우자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23.7%와 16.7%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여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강유지(43.5%)와 소득창출(28.9%)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위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와 경제활력의 저하,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2].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제고는 성공적 노후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의 한 해법으로 학문적·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더욱 증가되고 있다[3].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인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건강, 경제, 사회, 심리요인 등 다양한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 중 일부 요인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왔

다[4].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들 요인들의 차별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요인들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실무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 개념과 관련 이론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개념은 1961년도에 Neugarten, Havinghurst and Tobin[5]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서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들은 생활만족도를 전반적인 삶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후 수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면서, 생활만족도 개념은 초기와 달리 건강 중심의 협의적 개념에서 다양한 특성이 포함된 광의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초기 연구는 생활만족도 개념을 건강을 중심으로 한 협의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객관적 건강상태 및 관리 등을 주요한 구성요소들로 제시하였다[6][7].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건강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생활만족도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8].

이에 덧붙여, 생활만족도 개념이 초기에는 구성요소들의 객관적 상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주관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즉, 생활만족도 개념이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만족도 개념이 삶의 전반적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안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9-11].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추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12].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이론들로는 욕구이론, 분리이론, 활동이론, 연속이론, 전생애발달이론 등이 있다. 욕구이론[13]은 인간이 생리적 욕구, 안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소속감과 애정, 존경, 자아실현 등과 같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분리이론[14]은 노년기가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고 관계망이 크기가 축소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는 활동이론[5]은 노인들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을 찾아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연속이론[15]은 노인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노인들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분리이론, 활동이론 및 연속이론은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생애발달이론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18]. 예컨대, Erikson[19]은 인간은 노년기에 통합감 대 절망감이라는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아통합감, 즉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Baltes and Baltes[18]는 연령증가로 인한 쇠퇴와 변화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노년기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상전략을 통

해 개인적 통제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Ryff[17]도 자율성, 목표의식, 인격적 성숙, 삶에 대한 지배 의식, 자아수용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성공적 노후의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이론들은 관심의 초점과 시각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을 종합하면, 크게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외에서 그동안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수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된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을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최근에 수행된 실증연구들에서 발견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Worobey and Angel[20]과 신창환[21]은 만성질환의 수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김정연·이석구·이성국[22]의 연구에서는 복합상병(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을 많이 보유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기능장애와 질병유무로 측정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ugisawa, Shibata, Houhham, Sugihara and Liang[23]은 이들 두 변수가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 지표로 사용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동호[24]와 박순미·손지아·배성우[25]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정신적 건강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승희·노승현

[26]은 우울수준과 죽음불안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객관적 경제지표들을 사용하여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27][28],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29][30], 연금비수령자보다는 연금수령자가 그리고 연금수령액이 높은 사람들일수록[31][32], 임대주택 거주 노인보다는 자가주택 거주 노인들이[30][33]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을 지표로 사용하여 연구한 Breeze, Jones, Wilkinson, and Fletcher[34]는 노인들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년도에 걸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를 비교 연구한 정순돌·이선희[35]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적 요인 중에서 여가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avighurst[36]는 가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사회봉사활동, 우인관계, 취미·오락 등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Lawton[37]은 여가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배[38]는 오락·취미활동, 학습활동 및 봉사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사회적 요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ice[39]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에게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응력과 회복력을 최대화시켜 줌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Wankle, Mummery, Stephens and Craig[40]와 Sneegas[41]은 노인들이 배우자, 자녀 및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도구적 차원의 지지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윤현숙·허소영[21]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및 도구적 지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갑숙·임왕규[42]도 배

우자, 자녀 및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심리적복지감을 증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Paradise and Kernis[43]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에 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Robinson, Schluta, Castillo and Kopel[44]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손신영[45]과 배나래·박창선[46]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희경[47]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이 클수록 노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종보·임왕규[48]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자아정립이 잘된 노인일수록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성격유형 연구에서 McCrae and Costa[49] 및 Eysenck[50]는 적극적인 외향성 성격을 가진 노인들은 삶의 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정종현·최수일[51]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의 분석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건강, 경제, 사회 및 심리적 요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양한 결정요인 들 중에서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경제,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으로서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여가활동 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요인 관련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만성질환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 건강상

태보다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52][53].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객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하면서 노인의 전반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건강의 양호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동호[24]와 박순미·손지아·배성우[25]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리해근·하규수[54]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1.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로는 객관적 경제수준이 아니라 주관적 경제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월평균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객관적 경제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5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객관적인 경제수준이 동일할지라도 이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족 혹은 충분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경제수준보다는 주어진 경제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 즉 주관적 경제수준이 노인 생활만족도의 더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가리킨다.

Breeze, Jones, Wilkinson, and Fletcher[34]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순돌·이선희[35] 및 리해근·하규수[54]의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여가활동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여가활동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가활동 연구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여가활동 분류유형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Havighurst[36]는 여가활동을 가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사회봉사활동, 우인관계, 취미·오락활동, 학습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김태현[56]은 단독충실형, 가족충실형, 우인교유형, 독서형 및 사회참여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동배[30]는 오락·취미활동, 학습 및 봉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유형들은 대체로 복잡하고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Erik and Koen[57]이 제시한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활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공통의 목적이 있는 발전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소비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형태의 시간소비로 참여자 자신이 관객 혹은 소비자이거나, 어떤 경험이나 자료, 상품 등을 이용하는 활동을 뜻한다.

Erik and Koen[57]은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갑숙·임왕규[42]의 연구에서도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참가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요인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제공주체, 지원의 원천 및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58].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제공주체에 따른 분류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연결망 혹은 지원 체계의 탐구와 관련하여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이 분류유형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따라서, 본 연구도 제공주체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로 나누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자녀지지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그리고 친구지지는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며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이갑숙·임왕규[42]의 연구는 배우자, 자녀 및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리혜근·하규수[54]의 연구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배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그리고 5대 인성모형의 한 구성요소인 외향성의 세 변수가 가장 많이 탐구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자아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개념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이 되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두 변수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생활만족도의 심리적 결정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외향성의 두 변수에 초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향성은 사교적이며 친구가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Paradise and Kernis[43]는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손신영[45]과 배나래·박충선[4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McCrae and Costa[49] 및 Eysenck[50]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성격을 가진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중현·최수일[51]의 연구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자아존중감 및 외향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연구모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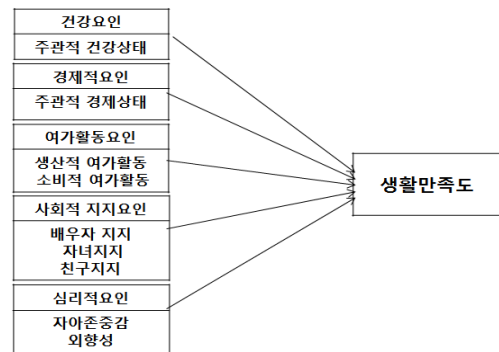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10 곳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협조의사를 밝힌 1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별로 규모에 따라 30-40명의 노인들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독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총 370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23부를 제외한 총 34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4.7%, 여자가 55.3%이고, 연령은 60-64세가 3.5%, 65-69세가 46.4%, 70-74세가 21.0%, 75-80세가 24.5%, 80세 이상이 5.89%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무학이 7.2%, 초졸이 20.5%, 중졸이 25.1%, 고졸이 23.9%, 전문대졸이 6.3%, 대학졸이 13.5%, 대학원 이상이 3.5%의 분포를 보였으며, 월평균소득은 60만원미만이 20.7%, 60-120만원이 23.9%, 120-180만원이 18.4%, 180-250만원이 12.7%, 250만원 이상이 24.2%의 비율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9.7%,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유무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5.7%, 따로 사는 경우가 62.0%, 자녀가 없는 경우가 2.3%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69.7%, 없는 경우가 30.3%의 비율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정한태[58]의 연구를 참조하여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Davis and Halmick[60]이 개발한 척도에서 4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변수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은 Erik and Koen[57]이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3문항과 2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사회적지지 변수인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는 Bengtson and Culter[61]이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4문항씩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62]이 개발한 RSE척도에서 3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외향성 변수는 McCrae and Costa[49]이 개발한 성격 5요인 모델척도에서 4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최성재[12]가 개발한 노인생활만족도 척도에서 7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5점 스케일(‘확실히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스케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형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거나 RMSEA가 .05 미만이면 모형적합도가 우수하며, 모형적합도 지수가 .80~.90 사이이거나 RMSEA가 .05~.08 사이의 값을 가지면 모형적합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63][64].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에 투입된 측정모형의 모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 재량	AVE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건강상태1	.789	.724	.847	.916
	주관적건강상태2	.813			
	주관적건강상태3	.930			
	주관적건강상태4	.894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경제수준1	.853	.791	.954	.935
	주관적경제수준2	.890			
	주관적경제수준3	.924			
	주관적경제수준4	.874			
생산적 여가활동	생산적여가활동1	.654	.582	.806	.745
	생산적여가활동2	.757			
	생산적여가활동3	.709			
소비적 여가활동	소비적여가활동1	.776	.590	.740	.672
	소비적여가활동2	.631			
배우자 지지	배우자지지1	.941	.778	.954	.888
	배우자지지2	.950			
	배우자지지3	.964			
	배우자지지4	.844			
자녀지지	자녀지지1	.707	.731	.915	.881
	자녀지지2	.848			
	자녀지지3	.877			
	자녀지지4	.811			
친구지지	친구지지1	.899	.782	.935	.928
	친구지지2	.918			
	친구지지3	.867			
	친구지지4	.813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1	.807	.643	.894	.807
	자아존중감2	.799			
	자아존중감3	.695			
외향성	외향성1	.865	.722	.912	.899
	외향성2	.865			
	외향성3	.815			
	외향성4	.783			
생활 만족도	삶의만족도1	.630	.646	.926	.891
	삶의만족도2	.774			
	삶의만족도3	.829			
	삶의만족도4	.716			
	삶의만족도5	.889			
	삶의만족도6	.632			
	삶의만족도7	.784			

$\chi^2(657)=1286.444, P=.000, RMSEA=.053, IFI=.942, TLI=.934, CFI=.942$

형적합도지수를 보면 IFI는 .942, TLI는 .934, CFI는 .942로서 모두 .90을 넘는 값을 보이고 있고 RMSEA는 .053으로서 .05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모형적합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모두 최소한 .50 이상의 높은 값으로 해당 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이면 적절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지니며, 각각의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면 적절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한다[65][66]. [표 1]을 보면 모든 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은 각각 모두 .50 이상과 .7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적절한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수준, .70 이상이면 만족스러운 수준, 그리고 .80 이상이면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한다[67].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의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인 .80을 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의 두 척도의 신뢰도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70 내외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주된 추정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기법을 사용하였으며,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변수들간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 추정에 앞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부분으로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간의 선형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R^2 와 η^2 를 비교하는 한편 그래프를 그려서 비선형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변수들의 변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선형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계수가 .80이 넘거나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 넘으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2]에 제시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가 .80 이상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분산팽창지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2를 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9
1. 주관적 건강상태	(.850)									
2. 주관적 경제수준	.493**	(.889)								
3. 생산적 여가활동	.428**	.420**	(.762)							
4. 소비적 여가활동	0.086	.195**	.279**	(.768)						
5. 배우자 지지	.333**	.423**	.366**	.152**	(.882)					
6. 자녀 지지	.412**	.507**	.474**	.232**	.532**	(.854)				
7. 친구 지지	.437**	.464**	.438**	.195**	.462**	.592**	(.884)			
8. 자아 존중감	.506**	.466**	.396**	.192**	.399**	.468**	.455**	(.801)		
9. 외향성	.562**	.545**	.512**	.214**	.539**	.594**	.721**	.629**	(.849)	
10. 생활 만족도	.660**	.563**	.556**	.254**	.545**	.567**	.497**	.598**	.668**	(.803)

* $P < .05$, ** $P < .01$; 대각선 상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IV.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상관계수는 모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이다. 우선 건강요인 및

경제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r=.660, p<.01$)와 주관적 경제수준($r=.563, p<.01$)의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 여가활동 요인들인 생산적 여가활동($r=.556, p<.01$)과 소비적 여가활동($r=.254, p<.01$)의 두 변수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지 요인들인 배우자지지($r=.545, p<.01$), 자녀지지($r=.567, p<.01$) 및 친구지지($r=.497, p<.01$)의 세 변수도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r=.598, p<.01$)과 외향성($r=.668, p<.01$)의 두 변수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생산적 여가활동 및 소비적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동료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감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은 모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이다. 우선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IFI는 .942, TLI는 .934, CFI는 .942로 .90을 넘는 값들을 보이고 있고 RMSEA는 .053으로서 .50에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어 모형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은 .647로서, 이것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생활만족도 변이의 64.7%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건강요인 및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beta=.286, p<.01$) 및 주관적 경제수준($\beta=.166, p<.01$)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

을 가리킨다.

둘째로 여가활동 요인 및 사회적 지지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요인인 생산적 여가활동($\beta=.094, p<.05$) 및 소비적 여가활동($\beta=.085, p<.05$)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지지($\beta=.160, p<.01$)와 자녀지지($\beta=.111, p<.05$)의 두 변수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친구지지 변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 여가활동 및 소비적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지지와 자녀지지가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보면, 자아존중감($\beta=.184, p<.01$)과 외향성($\beta=.122, p<.05$)의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구분	경로 계수	CR	유의 확률
건강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286**	5.864	.000
경제적 요인			
주관적 경제수준	.166**	3.251	.001
여가활동 요인			
생산적 여가활동	.094*	1.931	.028
소비적 여가활동	.085*	2.015	.023
사회적지지 요인			
배우자지지	.160**	3.233	.001
자녀지지	.111*	2.028	.022
친구지지	-.057	-1.021	.154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184**	3.617	.000
외향성	.122*	1.964	.026
$\chi^2(657)=1286.440, p=.000, RMSEA=.053, IFI=.942, TLI=.934, CFI=.942, R^2 = .647$			

* P < .05, ** P <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 이론 및 실증연구들의 검토에 근거하여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1,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 그리고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요인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3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의 두 요인만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 및 외향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5도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24][25][54], 주관적 경제상태[34][35][54],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42][57], 배우자 및 자녀지지[42][54], 자아존중감 및 외향성[43][45][46][48][50][51]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의 발견들과도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이들 다섯 가지 요인들이 생활만족도 변이의 약 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개개인의 개별적 특이요인들을 제외한다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의 다섯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각 요인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아홉 개의 변수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과 경제적 욕구는 생활만족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 욕구라는 욕구이론[13]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Erik and Koehn[57]은 소비적 여가활동보다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훨씬 큰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도 소비적 여가활동보다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소비적 여가활동의 영향의 크기($\beta=.085$)도 생산적 여가활동의 영향의 크기($\beta=.094$)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이 노인 생활만족도 증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이든 아니면 수동적 형태의 시간소비 활동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세 유형의 사회적 지지 중에서 배우자 지지가 노인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 지지가 그 다음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자녀나 친구와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세간의 속설의 타당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친구지지는 노인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 변수를 동시에 검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은 동년배 친구들과의 친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친구지지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가활동 그 자체가 친구의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지지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친구지지도 노인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아홉 개의 변수 중에서 생활만족도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향성도 생활만족도 증진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외향성 등의 심리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예상보다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노인문화센터에 참여한 60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들과 노인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변수 이외에도 성공적 노후와 관련하여 심리적복지감, 행복감, 사기, 삶의 질 등의 다른 개념들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이 개념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자료를 사용하여 건강, 경제, 사회 및 심리적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횡단적연구에서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간의 인과적 영향을 탐구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동일한 응답원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변수들간의 관계의 강도를 강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수들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실태조사.
- [2] 허성호, 김종대,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제31권, 제2호, pp.417-418, 2011.
- [3] 정태연, "한국노년학에서 다룬 노인의 심리적 특성: 역사적 고찰과 미래의 과제, 한국노년학, 제31권, 제3호, pp.1119-1134, 2011.
- [4] 임춘식,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경기과주, 2007.
- [5] B. L. Neugarten, R. J. Havighurs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pp.134-143, 1961.
- [6] 이경옥, "서울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2권, pp.55-78, 2008.
- [7] A. Bowling and Z. Gabriel,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Aging & Society, Vol.24, 675-691, 2004.
- [8] 박선영, "일 지역사회 저소득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제23권, 제1호, pp.78-90, 2009.
- [9] 석말숙,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제26권, pp.237-261, 2004.
- [10] A. I. Berg, L. B. Hassing, G. E. McClearn, and B. Johanson,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old?," Aging & Mental Health, Vol.10, No.3, pp.257-264, 2006.
- [11] S. H. Roh, "The impact of religion, spirituality, &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 older adults," New York University doctoral

- dissertation, 2010.
- [12] 최성재, “노인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논총, 제49권, pp.233-258, 1986.
- [13] A.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4.
- [14] E. Cummings and W. E. Henry, *Growing old*, NY: Basic Books, 1961.
- [15] R. C. Atchley,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Vol.29, pp.183-190, 1989.
- [16] R. P. Abeles, *Life-span perspectives and social psychology*(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7.
- [17] C. D. Ryff, “In the eye of beholder: views of psychology well 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Psychology and Aging*, Vol.4, pp.195-210, 1989.
- [18] M. M. Baltes and P. B. Balte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Behavioral Science*(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19]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1993.
- [20] J. L. Worogy and R. J. Angel, “Poverty and Health: older minority women and the rise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1, No.4, p.370, 1990.
- [21] 신창환,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453-469, 2010.
- [22]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471-484, 2010.
- [23] H. Sugisawa, H. Shibata, G. W. Houhham, Y. Sugihara, and J. Liang, “The impacts of socialities in depressive symptoms in U. S and Japanes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8, No.4, pp.785-804, 2002.
- [24] 이동호,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제1호, pp.93-108, 2010.
- [25]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인구사회학적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pp.1-24, 2009.
- [26] 임승희, 노승현,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연구: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1권, 제1호, pp.1-14, 2011.
- [27] J. Aquino and D. W. Russel,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3, No.4, pp.480-490, 1996.
- [28] 정운영, 정세은,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119-1134, 2011.
- [29] 윤현숙, 허소영,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제27권, 제3호, pp.649-666, 2007.
- [30] 오승환, 윤동성,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2권, pp.119-147, 2006.
- [31] 하준광, “공적연금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비교연구”,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3호, pp.1-21, 2006.
- [32] 이선행, 이연숙,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 제1권, 제2호, pp.31-43, 1997.
- [33] 강현정, 김윤정, “여성노인의 가구유형 및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20권, 제1호, pp.71-80, 2009.

- [34] E. Breeze, D. A. Jones, P. Wilkinson, and A. E. Fletcher, "Association for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 Britain socioeconomic position: baseline data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Vol.58, No.8, pp.667-673, 2004.
- [35] 정순돌, 이선희,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3개년도(1994, 2004, 2008) 결과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229-1246, 2011.
- [36] R. J. Havighurst, *Social roles,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Eisendorfer & Lawton, M. P.(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598-618, 1973.
- [37] M. P. Lawton, *A multidimensional view of quality in frail elders: In the concept & Measurement of quality in elderly*. Ed by J. S. Birren, J. E. Lubben, J. C. Rowe et al, Academic press, Sna Diego, pp.74-88, 1991.
- [38] 김동배, "노인 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세논총*, 제25권, pp.137-160, 2000.
- [39] P. L. Rice, *Stress and health: principles and practice for coping and wellness*, monterey. Brook and Cole Publishing Company, pp.82-120, 1987.
- [40] L. M. Wankle, K. Mummery, T. Stephen, and C. L. Craig, "Prediction of physical activity intention from the Campbell's survey of well-being,"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16, pp.56-69, 1994.
- [41] J. J. Sneegas,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lled and later life adults: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8, No.4, pp.248-258, 1986.
- [42]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지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 [43] A. W. Paradise and M. D. Kerni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ragile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1, No.4, pp.30-55, 2002.
- [44] R. C. Robinson, S. K. Schults, C. Castillo, and T. Kopel, "Nortriptyline versus fluoxetine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nd in short-term recovery after stroke: a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7, No.3, pp.351-359, 2000.
- [45] 손신영,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제26권, 제3호, pp.601-615, 2006.
- [46] 배나래, 박충선,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2호, pp.761-779, 2009.
- [47] 김희경,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 제8권, 제1호, pp.24-35, 2006.
- [48] 정종보, 임왕규,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1권, 제9호, pp.335-351, 2011.
- [49] R. R. McCrae and P. T. Costa, *Emerging lives and enduring disposition: personality in adulthood*. Boston, Little, Brown, 1984.
- [50] H. J. Eysenck, "Four ways five factors are not basic," *Springer Publisher*, Vol.13, pp.667-673, 1992.
- [51] 정종현, 최수일,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49권, 제8호, pp.47-61, 2011.
- [52] A. Campbell, P. E. Convers, and W. L. Rode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53] A. M. Smith, J. M. Shelley, and L. Dennerstein, "Self-rated health: biological continuum or social discontinu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39, No.1, pp.77-83, 1994.

[54] 리해근, 하규수,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12권, 제6호, pp.280-292, 2012.

[55] R. A. Kalish,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1975.

[56]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6.

[57] V. I. Erik and V. E. Koen, "Leisure and social capital," *Leisure Science*, Vol.31, No.2, pp.192-206, 2009.

[58] S. Cohen and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p.1, p.357, 1985.

[59] 정한태, *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관련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60] E. P. Davis and S. A. Helmick,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4, No.1, pp.123-134, 1985.

[61] V. L. Bengtso and K. D. Culter,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s., R. M. Binstock & E. Shanas, N. Y. Van, Nostr & Reihold Co, pp.130-155, 1976.

[62] M. Rosenbu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63] 김계수, *AMOS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고려정보통신, 2001.

[64] R. P. Bagozzi and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6, No.1, pp.74-94, 1988.

[65]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66]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2006.

[67]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8.

저 자 소 개

김 명 속(Myuong-Suk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벤처기술경영학과졸업(석사)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졸업(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1월 : JD경영연구원(책임연구원)
- 2013년 2월 ~ 현재 : 마이비즈컨설팅(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실버산업,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및 창업, 인사관리

고 종 욱(Jong-Wook Ko)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 1996년 5월 : 미국 University of Iowa 졸업(사회학 박사)
- 1990년 3월 ~ 2000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수

- 2001년 3월 ~ 2013년 현재 :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인사조직, 방법론